

碩士學位 論文

濟州傳承童謠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指導教授 金 榮 敦

左 惠 景

1985年 12月

濟州傳承童謠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指導教授 金 榮 敦

左 惠 景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85年 12月

左惠景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1985年 12月

**RESEARCH INTO CHILDREN'S SONGS
HANDED DOWN ON CHEJU ISLAND**

Hye-kyung Choa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D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85

目 次

Summary	1
I. 序 言	3
II. 濟州傳承童謠의 分類	6
III. 濟州傳承童謠의 內容	10
1. 動植物謠	10
2. 天體氣象謠	13
3. 遊 戲 謠	14
4. 語 戲 謠	19
5. 諷 笑 謠	22
6. 呪 術 謠	25
7. 자 장 가	27
IV. 濟州傳承童謠의 特性	30
1. 形式上の 特性	30
2. 內容上の 特性	34
V. 結 語	41

Summary

Research into Children's Songs Handed Down on Cheju Island

The natural and cultural environments of Cheju island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ainland. Many compiled resources of science have been the object of investigation by scholars who are interested in them. In order to research children's songs from point of view of the whole, I collected them scattered all over this island, and studied them by means of each part. The results which I achieved are as follows according to purpose of the songs.

1. Children's songs handed down on Cheju Island could be divided into several types according to themes. They are as follows. Songs of animals & plants, songs of the celestial sphere & atmosphere phenomena, songs of merrymaking, songs of language, songs of satire, and nursery songs.

2. Songs of animals & plants are separated into two parts. One is sung when children enjoy looking at animals & plants. The other is sung when children collect animals & plants, play with them, and observe their biological change. Then, children sometimes identified themselves with animals & plants by personifying them. The characteristics represented by the figure, moving and the environment of animals & plants are connected to those from children's experience through their lives, and enabled children to express their emotions.

3. Children sing the songs of celestial sphere and atmosphere, when they wonder at the moving of heavenly bodies and the change of weather. The traditional view of the songs said that the movement of heavenly bodies and weather would be possible to change, if pure children sang them.

4. The songs of merrymaking are sung when children hunt animals and collect plants, when they play with them, and when they enjoy themselves playing with them in groups. Children could express their feelings and desires through satirical plays. Dynamic songs are sung according to the process of experienced the progress of socialization through the plays in groups, and got their cheerfulness and good health while enjoying themselves living in nature. And new songs of merrymaking came out recently. Children banter and satirize, the absurdity and illogicality found in adult society. And they express frustration for school and home through songs.

5. In songs of language, children create words which are possessed of wit and humors by means of displaying them during the process of the game of language by association. The game of knowing the opposite meaning by using the catechetical method of onomatopoeia and mimicry.

6. In satirical and laughing songs, children satirize and laugh at the objects of fun and the comic interests in irregular subjects. They are the children who have a few teeth missing, and who have their hair cut like a Buddhist priest and current characters. Children get a lesson from their songs of satire about these people.

7. The songs of incantation are sung when the children expect that something will happen by singing them. These songs inform us of the forms of melodies and the contents of spells. And they greatly represent associable power as spiritualistic medium by which the subjects of spells are connected to human beings.

8. Because nursery songs are an adult ones which the old sing to children to make them sleep. The world of the child's mind and sense of adulthood are reflected in them. The contents of them show the parents' hopes for their children, this means that the children grow up with a filial duty to their parents, give their fealty to the nation, and become rich.

9. When we compare children's songs on this island with those of the mainland, the former are short in verse in the formal aspect, and stray from the regular a two foot rhythm. The main parts of the songs are 3 foot rhythm of a mixture both 2 and 3 foot. A rhetoric is little refined, so it is hard for us to find idioms used in them.

10. In the substantial aspect, the unique themes which well represent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is island were used, and the songs which are strong in the sense of the actual were sung, by the consciousness of extremely different living conditions. A great part of the children's songs are about incantation. Though the narrative are short in children's songs, many problems were interrupted in the progress of research, because the children today are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And the conditions for research are change a lot of time goes on. But musical analysis of children's songs is possible according to books compiled on the subject. A fine view in comparative research about children's songs are presented to the whole world. And the results of research in various ways enable us to distinguish children's songs from other genre in traditional literature.

I. 序 言

傳承童謠는 옛날의 어린이들로부터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傳承되며, 이 고장에서 저 고장으로 傳播되는 노래들이다. 發生·傳承의 主體는 어린이이며 共同의 作이고 口碑文學의 특징을 지닌다.

童謠는 새나 꽃을 보았을 때, 벌레와 마주쳤을 때, 비나 바람이 불어 놀 수 없을 때, 벗들과 더불어 즐겁게 놀 때, 재미있는 말장난을 즐길 때, 정상에서 벗어난 애를 돌려주고 싶을 때 부르는 傳承童謠와 어른이 어린이를 위하여 창작한 創作童謠로 크게 나뉘어진다.

지금까지 韓國傳承童謠의 수집이나 연구는 다른 口碑文學에 비해 부진한 편이며 理論體系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傳承童謠의 研究는 民謠의 概念 속에 포함시켜 研究되어 왔으며, 수집 역시 민요수집의 부산물로 몇몇 民謠集¹⁾에 함께 수록되거나 童謠集²⁾으로 간행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게다가 세태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傳承童謠의 綜合研究를 위해, 곧 전체조명을 위한 하나의 部分研究로서 濟州地域의 傳承童謠 研究가 필요할 것이다.

本稿는 童謠³⁾에 나타나는 노래 構造의 美學的인 面을 살피고 辭說에 나타난 內容의 文學的 가치를 밝히며, 唱者의 年齡·用語·思考·生活 등이 民謠와 다르기 때문에 民謠와 다른 位相에 터전해서 童謠의 特性을 논의하여, 口碑文學 및 兒童文學 研究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 1) 金素雲; 「朝鮮口碑民謠集」, (東京: 第一書房), 1933.
金思燁·崔常壽·方鍾鉉; 「朝鮮民謠集成」, 正音社, 1948.
任東權; 「韓國民謠集」, 東國文化社, 1961.
——; 「韓國民謠集Ⅲ」, 集文堂, 1975.
——; 「韓國民謠集Ⅴ」, “ ”, 1980.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 2) 嚴弼鎭; 「朝鮮童謠集」, 章文社, 1924.
金素雲; 「朝鮮童謠選」, 岩波書店, 1933.
——; 「口碑童謠選」, 博文書館, 1940.
박두진; 「한국전래동요독본」, 을유문화사, 1962.
신경림; 「한국전래동요집Ⅰ,Ⅱ」, 창작과 비평사, 1981.
 - 3) 이하 濟州地域의 傳承童謠를 ‘童謠’라고 약칭한다.

既存資料⁴⁾를 바탕으로 필자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歌唱機緣과 內容爲主로 총체적인 分類를 시도하였다.

動植物謠나 天體氣象謠에 나타나는 情緒를 추출, 記錄文學에서 얻어진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고, 遊戱機能과 관련하여 遊戱謠·語戱謠·諷笑謠·呪術謠·자장가의 題材 및 內容의 分析結果를 自然環境 및 歷史的 背景을 기반으로 韓本土童謠와 對比하여 이 지역 童謠의 特性을 考察하고자 한다.

한편, 자료수집은 동일한 지역내의 學父母와 國民學校 兒童을 상대로 하여 傳承變異를 고려하면서 수집하였다.

수집기간, 수집지역 및 각편 수는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자료수집 상황표⁵⁾

수 집 기 간	수 집 지 역	수 집 편 수	
		편 수	내 수
1982. 6	표선면 성읍리	10	22
		11	
1982. 6	한경면 고산리	8	15
		7	
1982. 8	대정읍 보성리	14	20
		8	
1982. 8	제주시 봉개동	10	22
		11	
1983. 6	안덕면 화순리	4	13
		4	
1983. 7	애월읍 금성리	11	20
		6	
1983. 7	한림읍 수원리	6	18
		4	
1983. 7	남원면 태흥리	8	18
		5	
1984. 4	제주시 시내일원	10	19
		6	

4)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正音社, 1977.

濟州大學; 「國文學報」, 第七輯 (中文里調查), 1975.

濟州大學; 「學術調查報告書」, 第五輯 (蘭山里調查), 1977.

濟州大學; 「學術調查報告書」, 第六輯 (城邑里調查), 1978.

濟州大學民俗博物館; 「海村生活調查報告書」 (龍水里 및 吾照里調查), 1978.

5) 같은 謠種이며 同一한 題材를 취했다더라도 사설내용이 달라진 것은 하나의 각편으로 취급한다.

수 집 기 간	수 집 지 역	수 집 편 수	
		권	본
1984. 6	애월읍 광령리	4	13
		5	
1984. 6	애월읍 애월리	6	20
		3	
	계	161	200

※ 개는 傳承童謠이고 나머지는 새로 생겨나 傳承되는 童謠이다.

한편, 本稿에 이용된 자료는 필자가 수집한 제주지역의 傳承童謠와 既存資料를 대상으로 했으며 韓本土童謠와⁶⁾ 새로 생겨나 傳承되는 童謠 등은 補助資料로 이용하였다.

分析對象은 다음〈표2〉와 같다.

〈표2〉 分析對象

著 者	册 名	出 版 事 項	分 析 數
金 榮 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152 / 152
秦 聖 麒	《南國의 民謠》	正音社 (1977)	19 / 27
濟州大學	《國文學報》(七輯)	증문리 (지역조사)	54 / 116
濟州大學	《濟大學術調査報告書》 (一~八輯)	난산, 성읍 (지역조사) 난음, 좌지	
筆者 蒐 集	제 주 도 일 원	(지역조사)	161 / 200
계			386

※ 사실내용이 중복되거나 童謠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제외시켰음.

民謠研究와 마찬가지로 童謠도 가락, 辭說, 機能 등 構成要素의 총체적인 分析을 통해서 그 全貌가 밝혀지는 것이겠지만, 노래로 불리지 않을 경우도 있어 가락채보가 힘들다. 따라서 本稿는 가락을 제외한 題材, 內容, 傳承實態, 表現 등 주로 辭說과 遊數機能의 측면을 중심으로 童謠의 性格을 究明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童謠와 다른 口碑文學間의 位相定立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아울러 더 많은 자료의 수집, 연구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6) 金素雲; 「朝鮮童謠選」, (1933).
 朴斗鎭; 「한국전래동요독본」, (1962).
 任東權; 「韓國民謠集」, (1961).
 任東權; 「韓國民謠集」, (1975).
 任東權; 「韓國民謠集Ⅴ」, (1980)의 자료.

II. 濟州傳承童謠의 分類

수집된 자료는 分類 作業을 통하여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童謠는 어떻게 分類되어 왔으며, 濟州童謠 分類案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傳承童謠는 遊戲的 機能이 따르는 童心을 표현한 노래로, “자연을 무대로 하거나 집단적 놀이 그 자체를 위한 遊戲謠”라고 할 수 있다.⁷⁾ 그러나 遊戲한다는 機能이 있긴 하지만 各 機能이 固定된 것은 아니며 性的 區別도 분명하지 않고, 地域에 따라 그 地域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題材를 취하여 表現樣相에 差異를 드러내지만 民謠처럼 그 地域性이 뚜렷하지 않다.⁸⁾

따라서 童謠의 分類는 內容上의 分類가 보다 妥當性이 있으리라 믿는다.

既存의 分類를 살펴 보면 우리 나라에서 문헌상 최초의 童謠集은 1924年 嚴弼鎭의 《朝鮮童謠集》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分類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金素雲은 國文版 《口傳童謠選》에서 9가지로 分類하고 日語版 《朝鮮童謠選》에서는 10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任東權은 《韓國民謠集》에서 民謠와 더불어 童謠를 細分한 바 있다. 朴斗鎭은 《韓國傳來童謠讀本》(韓國兒童文學讀本 10)에서 16種으로 나누고 있으며 金榮敦은 童謠를 7가지로 나누고<표3>과 같이 整理한 바 있다.

7) 玄容駿·金榮敦: “韓國傳承童謠에 드러난 靑少年의 意識”, 「濟州大學論文集」, 第12集, 人文大學 編, 1980, p.113.

8) 玄容駿·金榮敦; 위의 글, p.140.

〈표 3〉 韓國傳承童謠分類對比表⁹⁾

金榮敦 分類案	金素雲 《口傳童謠選》(1940) 《朝鮮童謠選》(1933)	任東權 《韓國民謠集》(1961)	朴斗鎭 《한국전래동요독본》 (1962)
1) 動植物謠	虫鳥 (鳥の謠, 魚や虫の謠, 植物の謠) ④	動物謠 { 鳥類謠, 짐승謠, 昆蟲謠, 魚類謠 } 植物謠 { 나무노래, 풀 노래, 採菜謠 }	새 노래, 나무노래, 곤충노래, 풀 노래, 짐승노래, 나물노래, 어류노래, 꽃 노래
2) 天體氣象謠	天體氣象(天體・氣象)	③ 自然謠	자연의 노래, 더위노래, 추위노래
3) 遊戲謠	遊戲(遊戲의謠)	遊戲謠	유희노래
4) 諷笑謠	諷笑・諧謔(諷笑・諧謔)	諷笑謠	놀려주기
5) 語戲謠		語戲謠 數謠	
6) 자장가	(父母, 兄弟, 子守唄)	愛撫와 자장謠	자장노래
7) 其他謠	父母, 兄弟, ①呪唱 動作 雜(雜謠) 童女謠, (童女謠) ② 追慕	思母謠 情緒謠 { 家族謠, 感傷謠, 情婚謠 }	사랑노래, 가족노래, 그밖의 노래

※ 金素雲의 分類에 있어서 ()내는 그의 《朝鮮童謠選》(1933)에서의 分類임.

위의 表에서 보면 대체로 비슷한 分類案이 提示되고 있지만 金素雲은 童謠 가운데서 呪術性을 인정하여 ①의 呪唱과 動作을 설정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思母謠를 ②의 追慕로 정한 점이 特異하다. 任東權은 天體氣象을 포함한 일부 自然을 題材로 한 노래를 ③의 自然謠로 설정한 것과 動植物謠를 ④의 動物謠, 植物謠로 分類한 점이 特異하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自然謠 概念이 불분명해질 위험성이 있게 된다. 또한 金素雲과 朴斗鎭은 語戲謠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다른 노래에 분류한 점이 특징이다.

特足地域의 分類로, 金榮敦은 《濟州島民謠研究(上)》에서 濟州地域의 童謠를 수집하고 童謠 152편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分類한 바 있다.

9) 金榮敦; “韓國傳承童謠의 傳承變異” 「李丙疇先生 周甲紀念論叢」, 二友出版社, 1981. p.528.

- ① 동요 1. 짐승과 벌레노래
 2. 애를 놀리는 노래
 3. 놀이하는 노래
 동요 4. 비 노래
 5. 기타동요
- ② 자장가
 ③ 어희요

위의 分類는 자장가와 語戲謠를 노래의 性格上 ‘① 童謠’와 구분하고 있다.

以上에서 논의된 것을 綜合해 보면 童謠가 素材 혹은 題材에 따른 分類方法에 의존하고 있다. 童謠는 內容上의 主題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形態上의 特徵도 찾기 어려우므로 分類에 어려움이 있다. 또 題材를 中心으로 한 分類方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題材가 둘 이상 나타나거나 機能이 애매하고 다른 機能에 동일한 題材가 나타날 경우는 分類에 난점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본격적이며 충분한 동요수집이 이루어지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후에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童謠의 機能은 지금까지 인정되고 있지 않고¹⁰⁾ 歌唱機緣이 뚜렷한 遊戲謠나 자장가 등은 성인들의 노동요와 대등한 機能性을 지니지만, 各篇이 완전히 固定되지 않으므로 本考에서는 歌唱機緣을 참고하면서 題材 및 遊戲機能 위주로 다음(표4)와 같이 分類하고자 한다.

< 표 4 > 濟州傳承童謠 題材一覽

謠 別	機 緣	題 材	편 수	%
1) 動植物謠	動物을 잡거나 가지고 놀면서, 動物을 쳐다보면서, 植物을 가지고 놀거나 쳐다보며	잠자리, 매미, 도롱이, 땅아메비 등 꿩, 까마귀, 기러기, 매 등 고사리, 식물잎만 등	167	43.26
2) 天體·氣象謠	天體物을 쳐다보거나 비가 오는 것을 그치게 하면서	달, 별, 비 등	22	5.69
3) 遊 戲 謠	순수遊戲를 즐기면서	소꿉놀이, 줄놀이, 워낙놀이 호박놀이 등	66	17.09
4) 語 戲 謠	말놀이 하면서	숫자놀이, 꼬리따기, 문답체 등	29	7.51
5) 諷 笑 謠	비정상적인 상대를 조롱하며	머리 깎은 애, 이 빠진 애 등	44	11.40
6) 呪 術 謠	呪術적인 행위를 하면서	빠진 이, 뺨, 등	37	9.51
7) 자 장 가	아기를 재우면서	달래기, 어르기, 재우기 등	21	5.44
計			386	100

10) 張德順外3人; 「口碑文學概說」, 一朝閣, 1980, p. 87.

動物이나 植物을 보면서 자신의 感情을 노래하거나 채취하여 즐기는 것을 動植物謠, 天體나 氣象의 變化에 대해 驚異로움을 노래한 것을 天體氣象謠, 遊戲를 同伴하여 놀이의 進行過程이나 즐거움을 표현한 노래를 遊戲謠, 問答이나 꼬리따기, 對句 맞추기 方法으로 말을 지어 가며 부르는 것을 語戲謠, 머리 깎은 애, 이빨 빠진 애 등을 놀리면서 부르는 것을 諷笑謠, 빠진 이를 지붕 위로 던지거나 뱀이 사라기기를 바라면서 부르는 노래를 呪術謠, 아기를 재우거나 달래면서 노래하는 것을 자장가 등으로 分類할 수 있다.

童謠는 自然을 무대로 하거나 集團의 놀이 그 自體를 위한 遊戲謠가 主從을 이루며 그 題材는 自然物이다. 말놀이 역시 遊戲라는 측면에서 遊戲謠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놀이 도구를 달리 필요로 하지 않고 言語를 사용하여 즐긴다는 점에서 항목을 달리 설정했다. 그래서 濟州地域의 童謠는 動植物謠, 天體氣象謠, 遊戲謠, 語戲謠, 諷笑謠, 呪術謠, 자장가 등으로 그 分類가 可能하다.

Ⅲ. 濟州傳承童謠의 內容

1. 動植物謠

動植物謠는 童謠의 主從을 이룬다. 日常 부딪치는 動植物에 접하고, 만지고, 채취하고, 놀면서 素朴한 心情을 가식없이 노래하기 때문이다.

知的發達이 未分化的이고 自我中心的¹¹⁾이어서 自然物에 자신을 投影하거나 擬人化해서 同一視하기도 하며, 自然物의 모습은 물론 움직임이나 분위기 또는 生態學的 成長過程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특징이 自身의 生活經驗과 연결되면서 描寫된다.

動植物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쳐다보고 노래하면서 어떤 狀態가 바뀌지기를 바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채취해서 무슨 놀이를 하거나, 變化를 일으키는 行爲를 하는 경우이다.¹²⁾ 새 등 鳥類를 노래한 것은 쳐다보며 자신의 感情을 表現하므로 前者의 性格을 띠며, 같은 動物을 노래한 것일지라도 관응을 題材로 하거나 植物을 채취하여 놀이와 함께 불리는 것은 後者の 特徵을 지닌다.

- (1) 기러기 날아라
큰기러기 앞서고
작은기러기 뒤서라
사이좋게 날아라.

(원자채록, 제주도 봉개동, 84·8, 임선아, 여·15.)

- (2)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우리선생 세실직에
염서한장 싸주서요
한장말고 두장이요
두장말고 석장이요
..... 열장이요.

(원자채록, 남원읍 태흥리, 83·9, 김효신, 여·13.)

11) 金正律; 「兒童發達과 教育」, 學文社, 1982, p.175.

12) 志田義秀는 「日本民謠概論」, (1906)에서 童謠를 遊戲謠로 보고,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活動的 遊戲歌 - 鞠歌, 羽子歌, 子守歌, 其他の遊戲歌.

靜止的 遊戲歌 - 天文に關する歌

動物に關する歌

其他の遊戲歌

金榮敦; “童謠”, 「韓國民俗大觀」, 第6卷, 口碑文學 篇,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1, p.361.

새인용.

(3) 뽕뽕장서방 어찌어찌 살았나?

삼년묵은 2심빛되
오년묵은 2심밭되
콩죽이며 그럭저럭 살았지.
저이칭칭 개아들놈이
날잡으래 오랏으니
흔 찻눈은 쟁그리고
흔 찻눈은 바로뜨고
흔 찻독진 둘러매고
날잡으래 오랏으니
하라산에 곱아올랑
이천장에 집을짓고 살았다.

(뽕자재목, 제주시 봉개동, 82.8, 김진선, 여·13.)

<語釋> 뽕뽕장서방 어찌어찌 살고있소?

삼년묵은 가을밭에
오년묵은 가을밭에
콩주으며 그럭저럭 살고있소
저기칭칭 개아들놈이
날잡으러 왔으니
한쪽눈은 쟁그리고
한쪽눈은 바로뜨고
한쪽어깨에 둘러매고
나를잡으러 왔으니
하라산에 숨어서올라
이천장에 집을지어 살았다.

(4) 성산땅에 불싸라

지미땅에 불싸라.

(성산읍 오조리, 金泰允, 남·68.)

<語釋> 성산땅에 불꺼라
지미땅에 불꺼라.¹³⁾

(5) 발털어지지 말라

발털어지지 말라

아강발랑 너네아방 죽건

상에 올리곡

상발랑 너네어멍 죽건

13) 金榮敦 ;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1324번의 자료. 지미땅은 舊左面 終達里에 있는 地尾峰(해발 165m)의 烽燧臺.

상에 올리곡
 존발랑 우리떡곡
 발떨어지지 말라
 네미네비 상에올리게,
 (한경면 판포리, 고수임, 여·84.)

< 語釋 > 발떨어지지 말아라
 발떨어지지 말아라
 어미발랑 너희아버지 죽으면
 상에 올리고
 가운데발랑 너희어머니 죽으면
 상에 올리고
 잔발랑 우리떡고
 발떨어지지 말라
 너희어미아비 상에올리게.¹⁴⁾

(1)(2)는 다같이 하늘을 날으는 기러기를 보면서 노래하고 있다. (1)에서는 어린이들의 水平意識이 잘 나타나며, (2)는 기러기의 行列을 보고 멀리 계신 선생님께 대한 애뜻한 그리움이 일어 선생님께 소식을 전해 달라는 간절함은 “한장 말고……열장이요”의 反復을 통해서 祈願으로 나타난다.

(3)의 평노래 (장끼노래)에는 서민들의 哀歡이 평의 삶에 比喻되어 불려지고 있다. 各篇이 唱者에 따라 다양한 內容으로 展開되며, ‘안정’ - ‘위기’ - ‘절정’ - ‘도피’의 類型을 形成하여 “장끼전”의 內容과 비슷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 唱者는 이전에 口演되던 평노래를 理解하고 辭說內容을 變異시켜, 改作 또는 충분히 구성한 후 適當한 口演狀況에 처했을 때는 口演하게 되는 것이다.¹⁵⁾ 그래서 다시 그 사실이 固定되고 再創作이 가능케 되며 固定的인 사실에 卽興的인 사실이 가미된다.

(4)는 쇠비름뿌리를 두드리면서 뿌리가 빨개지는 것을 보고 烽燧臺에 불이 켜진 것에 비유하였다.

(5)는 계를 불에 구울 때 발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어른들의 祭祀儀式을 흉내내고 있다. ‘아방’, ‘어멍’, ‘우리’가 ‘아강발’, ‘상발’, ‘존발’과 對比되면서 조그만 孝心이 效果的으로 表出되고 있다.

動植物은 거의 모든 童謠에 題材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새, 곤충 따위가 등장하는 노래는 흔히 볼 수 있으나 큰 動物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어린이들이 작고 자주

14) 秦聖麒：「南國의 民謠」, 正音社, 1977, 365면의 사료.

15) Ruth Finnegan ;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52.

접할 수 있는 動物에 同類意識을 느끼고 애정이 쏟린다는 증거이다. 또 바다동물을 題材로 한 노래도 많은 데 이는 바다에 인접해 있는 그들의 生活環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 天體氣象謠

어린이들은 天體를 바라보면서 憧憬과 신비감을 느끼며 무한한 想像力을 키우기도 한다. 氣象이 變化되리라는 기대감은 原始的인 信仰性과도 연결된다.

- (6)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세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부모형제 모셔다가
백년만년 살고지고.

(필자채록, 애월읍 금성리, 83.3, 이혜숙, 여·13.)

- (7) 비야비야 오지말라
임장밭에 물고담져
장독대에 물고담져.

(필자채록, 제주시 연동, 84.4, 이금숙, 여·61.)

<語釋> 비야비야 오지말라
임장밭에 물고인다
장독대에 물고인다.

- (8) 비야비야 오지말라
개골군이 운다더라
우리어명 물은밭에 물고담져.

(필자채록, 제주시 연동, 84.4, 양재훈, 남·15.)

<語釋> 비야비야 오지말라
개골군이 운다더라
우리어마 물은밭에 물고인다.

(6)은 童話와 같은 願望이 담겨져 있다. 이 노래는 成人과 어린이가 함께 부르며 韓本土에도 傳承되고 있는 노래로 韓國人의 憧憬의 世界가 天上에서 地上으로 공간이 확대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7) (8)은 비가 내려 밖에 나갈 수 없는 처지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비가 내리지는 안 되는 상황을 일거하여 비가 멈추리라는 기대감에서 노래한다. 이 노래는 “징개구리” 童

話에서 類推된 노래인 것으로 보이며, 개구리 울음 소리를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 갈까 걱정하는 소리로 比喩하였다. 이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높은 存在에게 호소를 토하면, 일가의 呪述의調節이 可能하다고 여기는 어린이들의 생각이 內包되고 있다.

3. 遊 戲 謠

遊戲謠는 노래의 박자를 맞추어 노래를 進行시키거나 놀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른다. 곤충을 잡거나 가지고 놀 때, 또는 集團이 모여서 행해지는 ‘호박놀이’, ‘외하르방놀이’ 등의 놀이를 進行시키려는 目的下에서 불리며 辭說內容이 비교적 固定的이다. 그러나 식물을 가지고 놀 때는 놀이의 內容을 말하면서 어린이의 情緒가 卽興的으로 表出되는 경우도 있다.

遊戲謠는 遊戲의 種類, 機能, 놀이 도구의 有·無, 構成人員數, 積極性 여부, 場所, 性別, 季節, 傳承여부 등을 기초로 하여 分類될 수 있다. 自然物을 도구로 이용하므로 도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機能이 완전히 固定되지 않으므로 도구나 機能에 의한 分類에 난점이 있다. 따라서 遊戲의 種類에 따라 分類하고 性別, 場所, 傳承여부, 季節에 따라 分析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濟州地域 遊戲謠에 드러난 傳承놀이 실태

分 類	種 類	性別	場 所	傳 承 여부	季 節
a. 동물을 가지고 놀면서	개똥벌레를 가지고 놀면서	남·여	外	○	여름
	풍뎅이를 "	"	內·外	○	"
	빙아개비를 "	"	"	○	"
b. 동물을 잡으며 서	잠자리, 매미 잡으며	"	外	○	"
	도롱이 나오게	"	外	○	"
	달팽이 집속에서 나오게	"	內·外	○	"
c. 식물을 가지고 놀면서	보리피리 만들며	"	內·外	○	"
	외비루뿌리 두드리며	"	外	○	봄~가을
	푼각시름 만들며	여	內·外	×	"
	실거리 나뭇잎 따기	"	"	×	"
d. 순수집단 놀 이 하면서	호박놀이	남·여	"	×	사철
	밤 놀이	"	外	×	"
	외하르방놀이	"	"	×	"
	원님놀이	"	內·外	○	"
	숨바꼭질	"	"	○	"
	소꿉놀이	"	"	○	"

앞의 表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自然物을 가지고 놀이를 즐겼고 男女의 性區別이 분명하지 않다. 自然物을 바라보거나 채취하는 과정이 불필요한 것은 場所에 구애됨이 없고, 動物을 가지고 노는 놀이는 여름에, 식물을 가지고 노는 놀이는 봄에서 가을까지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集團놀이는 사철 행해지며, 몇 개의 遊戲만이 아직도 농촌 어린이들에게 傳承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構成人員數와 積極性 여부에 따라 (a),(b),(c)는 혼자서도 가능한 個人놀이들이어서 消極的이고, 自然物과의 대화 또는 개인의 素朴한 素望이 드러난다. (d)는 積極性을 띤 集團놀이로 놀이 그 自體의 進行을 위해서 불리어진다. 遊戲謠는 반복과 韻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歌唱과 기억이 容易하도록 韻을 많이 사용하는 人間의 原初的 生理의 表出로 看做된다.

다음은 개똥벌레와 잠 자리를 잡으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 (9) 갯똥벌레 똥똥
우리집에 붙었다
날아와서 밝혀라.

(필자채록, 안덕교, 83.6, 김순지, 남·13.)

<語釋> 개똥벌레¹⁶⁾ 똥똥
우리집에 붙었다
날아와서 밝혀라.

- (10) 곤밥주리 청청
안자난 방석에 안자라.

(필자채록, 애월읍, 금성리, 83.10, 홍택삼, 여·61.)

<語釋> 고추잠자리 청청
앉았던 방석에 앉아라.

위의 노래들은 놀이의 類型을 말하면서 부르는 노래와 이와 비슷한 辭說이 固定되어 道內 일원에 傳承되고 있다. ‘똥똥’, ‘청청’은 動物을 유혹하기 위한 일종의 戲音이며 生動感을 주고 韻律的인 效果를 가져다 준다.

- | | |
|---|---|
| (11) 서방머린 터박터박
나머린 문질문질
질곱떡헝계 ¹⁷⁾ 홀리난
씨집보내사꺼. | <語釋> 남편머리는 터박터박
나머리는 맨질맨질
가장예쁘게 차리나
씨집보내야했다. |
|---|---|

(국문학보七, 중문, 양희옥, 여·17.)

16) 개똥벌레는 반딧불이 낮에 빛을 발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17) 질곱떡헝계 ; 가장 매끈하고 곱게.

(11)은 풀각시를 만드는 女兒의 고운 心情이 드러나 있다. 놀이를 하면서 卽興的으로 自身의 感情을 노래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辭說은 채록되지 않고 있다. 인형을 가지고 놀 수 없던 시절, 마늘과 같이 잔뿌리가 길게 달린 풀로 인형을 만들어서 옷을 입히고 ‘각시’ 役割을 하게 하는 놀이로서 소꿉놀이와 함께 행해진다.

다음은 集團놀이에 불리는 노래이다.

(12) 하르방 하르방
 문을아 줍서
 도둑놈 왔저
 도둑놈 왔다
 하르방 문을아줍서
 도둑놈 왔나
 문을아 주저.

(국문학보七, 중문, 김씨)

< 語釋 > 할아버지 할아버지
 문열어 주셔요
 도둑놈 왔어요
 도둑놈 왔다
 할아버지 문열어주셔요
 도둑놈 왔나
 문열어 줄께.

(13) { 하늘만이 튀어오소 꺽충
 콩방울만이 튀어오소 꺽충
 ㉠ { 뽕방울만이 튀어오소 꺽충
 녹뫼방울만이 튀어오소 꺽충
 좁쌀방울만이 튀어오소 꺽충
 ㉡ -어찌어찌 흥덕 왔소
 ㉢ { 당오름¹⁸⁾서 밧갈단
 단배불 붙이레 왔소
 ㉣ { 죽은술강알에 강보소 꺽소
 화리에 강보소 꺽소
 굴묵에 강보소 꺽소
 새당남은걸랑 그장가소
 흥나들셋.

(원자채 북, 애원읍 금성리, 83.7. 흥덕산, 여·67.)

18) 원당봉; 濟州市 三陽洞에 있는 山. 元堂峰은 一名 三陽峰 (해발 170 m)

- 〈語釋〉
- 하늘만큼 뛰어오소 경충
 - 콩알만큼 뛰어오소 경충
 - ①' { 관알만큼 뛰어오소 경충
 - { 녹두알만큼 뛰어오소 경충
 - { 좁쌀알만큼 뛰어오소 경충
 - ②' — 어찌해서 왔소
 - ③' { 당오름에서 밭갈다가
 - { 담배불 붙이러 왔소
 - ④' { 직우숨밑에 가보오 겹소
 - { 화로에 가보오 겹소
 - { 아궁이에 가보오 겹소
 - { 헤아리다 남은것은
 - { 가져가소 하나둘셋.

(12)는 놀이의 진행상 필요한 노래이다. 여럿이 줄을 지어서 임의로 각자의 役割을 정하여 각 役割을 행사하는 役割놀이이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할아버지’가 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수박 따먹는 시늉을 한다. 그러면 ‘외하르방’이 화를내며 “에이 이놈들 도둑놈덜”하고 쫓는다. 잡힌 사람이 도둑놈이 되는데 이가 곧 술래다.

(13)은 물건찾기 놀이에 同伴된다. 놀이는 왕으로부터 술래까지 열을 지어서 앉는다. 모인 사람이 ①를 부르고, 술래가 경충뛰어 맨앞에 선 왕 가까이로 접근하면 왕은 ②를 노래한다. “어찌 흥연 왔소”의 질문에 “담배불 붙이러 왔소”의 대답은 諧謔적이다. 量의 크기를 나타내는 ‘만’이 韻을 이루며 ‘콩’, ‘팥’, ‘좁쌀’ 등이 크기 순서대로 나열되어 뛰는 동작과 잘 對比가 되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의 차례, 순서 등을 중시하는 秩序意識의 노훈이라 볼 수 있다.

集團놀이는 社會的 關心이 확대되어 社會 構成員으로서 개인의 役割이 固定되고, 社會的地位를 부여받아 自己中心的 行動에서 벗어나 他人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社會를 익히는 데 적절한 놀이다. 또한 社會的 經驗을 맛보고 集團生活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데 적당한 놀이다. 어린이의 社會的 行動은 혼자놀이에서 併行놀이, 連合놀이, 또는 協同놀이로 年齡과 더불어 차례로 發達해 간다는 Parten의 주장¹⁹⁾은 매우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래에 이르러 多樣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意識이 細分化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純粹遊戲謠는 점차 자취를 감추어 諷刺性을 띠면서 새로 나타난 遊戲謠가 고무줄놀이, 기

19) M. B., Parten, "Social Participa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7, 1932.

金正律; 「兒童發達과 教育」, 學文社, 1982, pp. 180 ~ 181, 재인용.

차놀이, 그림그리기, 율동기 등의 놀이와 함께 불려지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動作과 함께 수반되어 反復되는 형태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TV나 라디오에서 방영되는 CM송이나 동요곡, 그리고 學校에서 배운 音曲에다 직접 가사를 붙여 풍자하는 內容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14) 칙칙폭폭 나도붙여줘
 싫어
 우리엄마한테 이글테야
 니네엄마가 똥테
 다리밑에 떡장수
 아이똥

칙칙폭폭 나도붙여줘
 싫어
 우리아빠한테 이글테야
 니네아빠가 똥테
 이나라의 대통령
 와~.

(필자채록, 애원음 광금교, 83.7, 이해숙, 여·13.)

(15) 비가 짹짹 내리네 —㉠
 신수시험 봤더니
 점수 100 점 어머니 60 점 —㉡
 아버지 0 점 —㉢

(필자채록, 제주서교, 84.4, 김경숙, 여·13.)

(16) 학교종이 똥똥똥
 어서모이자
 선생님이 봉투를 기다리신다.
 학교종이 없어졌다
 찾으러 가자
 선생님이 교문에서 엿사먹는다.

(필자채록, 제주서교, 84.4, 이민자, 여·13.)

(14)는 행렬놀이의 一種인 ‘기차놀이’할 때 불린다. 辭說이 단순하고 曲도 간단한 편이다. 對句를 형성하여 ‘떡장수’와 ‘대통령’이 對照가 되고 있으며 ‘엄마’가 ‘아빠’로 바뀔 때 따라 階層의 垂直的인 상승을 하고 있다. 兒童遊戲에 나타나는 階層意識은 앞서 살핀 집단 놀이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여기에 와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15)는 ‘얼굴그리기’놀이를 하면서 부르는데 ㉠은 머리털, ㉡는 눈과 코와 입, ㉢는 얼굴을 그리면서 부른다. 遊戱를 즐기면서, 성적이 향상되기를 강요하는 父母를 詰難하였다.

(16)은 선생님에 대한 금전만능의 사고와 감정이 종소리가 ‘돈돈돈’으로 울림으로써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 생긴 傳承遊戱謠에서는 社會階層間의 격차나 和睦하지 못한 家庭, 學校成績, 社會非理의 폭로가 주된 內容이 되고 있다. 傳承童謠와는 상당히 다른 意識이 形成되어, 아름다운 꿈과 깊은 애정을 表現한 노래가 점차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다.

4. 語 戲 謠

날말의 형태를 造作하여 音聲的, 內容的인 類似性を 기초로, 흥미로운 文章을 만들어 즐기면서 부르는 노래를 語戲謠라 한다. 韻律을 형성하거나 對句를 이루며 동원된 날말은 생기를 띠고 文章의 분위기를 살린다.

말장난 자체가 一種의 遊戱이고 特定한 놀이와 同伴됨이 없이, 말장난으로만 그치게 되므로 童謠와는 유다른 性格을 지닌다.²⁰⁾ 語戲謠의 형태는 꼬리따기, 對句맞추기, 問答體, 擬聲, 擬態 등의 方法으로 사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經驗을 토대로한 諧謔的이며 機智 있는 날말을 創造한다.

남씨가 굿어 遊戱活動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휴식을 취할 때, 이미 口傳되는 노래의 內容과 비슷한 狀況이 일어날 경우에 불려진다.

(17) 가마귀야 가마귀야 어디래 감서 흥
 장더래 감서 흥
 무신것 흥래 흥
 도래뒀날 수오시로 시집가겐 흥난
 가마귀입을 검은비단 그치래 가노래 흥
 어덜로 가겐 흥
 돛박낭 아래로 흥
 나도가마 흥
 오지마라 흥.

(필자채록, 제주도 봉개동, 82.8, 현순생, 여·43.)

20) 金榮敦; “童謠”, 앞의 글, p.373.

〈語釋〉 까마귀야 까마귀야 어디로 가니 흥
 장으로 간다 흥
 모래뒤날 사오시에 시집가리 하니 흥
 까마귀입을 짚은비단 자르리 간다 흥
 어디로 갈리하니 흥
 동백나무 아래로 흥
 나도갈 까 흥
 오지마라 흥.

(18) 저산뒤에 꼬박꼬박 흥는거뒤고.

미뻬쟁이여
 미뻬쟁이 환다
 희민 할애비여
 할애비 등굽나
 등굽으면 쉼질멧가지여
 쉼질멧가진 녀고냥난다.

(하략)

(필자채록, 한경면 고산리, 82.6, 이매자, 여•65.)

〈語釋〉 저산뒤에 꾸벅꾸벅 하는것되나

뵈기여
 뵈기는 환다
 희민 할아버지다
 할아버진 등이굽나
 등이굽으면 소의길마가지다
 소의길맞가진 녀구명난다.

(하략)

(19) 고사리 먹으면 고불고불
 맹순 먹으면 멘질멘질
 들굽 먹으면 들씩들씩
 함순 먹으면 함삭함삭
 양애 먹으면 냉글냉글
 마농 먹으면 매질매질.

(구좌읍, 송당리, 김제생, 남•17.)²¹⁾

〈語釋〉 고사리 먹으면 고불고불
 밀나물 먹으면 매끈매끈
 느릅나무 먹으면 들씩들씩
 함도리 먹으면 함삭함삭
 양하 먹으면 냉글냉글
 마늘 먹으면 매끈매끈.

(17)은 問答體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 농어를 시작하기 전이나 또는 同作하여 갈 곳이 있을 때 동료에게 권유하는 노래이다. ‘가마귀 혼인’을 위한 ‘혼수준비’를 素

21) 金榮敦; 알의 책, 1351번의 자료.

材로 하여 童心의 세계를 對話를 통해 잘 표현하고 있고, 문장 끝의 ‘흥’字를 연속시켜 리듬감을 살리면서 같이 할 수 없거나 同伴할 수 없는 심정을 昇華시키고 있다.

(18) (19)에서는 自身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낱말이나 成人이 사용하는 어휘들도 눈에 띈다. 이는 어린이와 成人의 共同作이거나 成人이 부르는 것을 따라 불렀을 가능성이 많고 日常的, 可視的, 具象的인 것을 題材로 해서 緊張體系를 이룩하여 傳承力을 끈질기게 해준다.²²⁾

(19)는 農村 산야에서 철따라 쉽게 구할 수 있는 산나물이나 채소들의 이름에 다가 입안에서의 味覺的인 감촉이 서로 연결되면서 구수하고 순박한 농촌의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20) 큰뎨아 짝 콩호방울 짝
 보깡 짝 먹엉 짝
 솔각 짝 고지 짝
 마중 짝 강 짝
 오당 짝 고당 짝
 드래 짝 호록 짝

(필자채록, 애월읍, 애월리, 84.6, 장석돈, 여·67.)

< 語釋 > 큰뎨아 짝 콩한방울 짝
 볶아서 짝 먹어 짝
 솔각 짝 고지 짝
 마중 짝 가서 짝
 오나 짝 구멍 짝
 속으로 짝 호록 짝

(21) 앞집의 장장장네 닭가
 뒷집의 장장장네 닭가
 저지붕위엔 깐콩깍지가
 아니깐 콩깍지가.

(필자채록, 애월읍 애월리, 84.6, 장석돈 여·67.)

< 語釋 > 앞집의 장장장네 닭인가
 뒷집의 장장장네 닭인가
 저지붕위엔 깐콩깍지인가
 아니깐 콩깍지인가.

22) 金榮敦; “韓國傳承童謠와 動植物”, 「口碑文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p.39.

(22) 일 일성이란 놀이
 이 이강산에 태어나
 삼 삼관선을 만들어
 사 사람을 죽여서
 오 오늘에 와서는
 육 육이오를 일으켜
 칠 칠만대군을 이끌어
 팔 팔도강산 넘다가
 구 구두발에 얻어맞아
 십 십초만에 케이오왔네.

(필자채독, 한림음 수원국교, 83.7, 김인미, 여·13.)

(20,21)은 발음하기도 어렵고 외기도 어려운 文章을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외어 나가나를 내기하는 놀이이다. ‘찍’은 혀를 입천장에 대어 튕기는 소리로 어떤 일이 붓마땅할 경우에 내는 소리이다. 여기서는 새의 소리에서 類推된 擬聲語라고 볼 수 있다.

(20)은 疑問型 ‘~가?’ 脚韻을 맞추면서 흥을 돋군다. 末音으로 사용되는 말은 ~귀, ~말, ~가?, ~골, ~여 등이 나타난다. 또 낱말의 뜻이 對立되어 音의 變化를 가져오는데, ‘가다/오다’, ‘술각고지/고망’, ‘알집/뒷집’, ‘깐/아니깐’이 對立的으로 나열된다. 이는 內容的, 音聲的인 것을 기초로 나열시켜 말놀이를 즐기고 있다.

語戲謔은 리듬의 율조를 맞추기 위해 音의 長短 또는 文法的 活用에서 詩的 自由 (Poetic licence)가 허용된다. 즉 운율과 構造型의 制限에 따라 日常語가 精巧하게 다듬어지거나 變化되기도 하는 것이다.²³⁾

어린이들은 語戲謔의 文章을 만들고 즐기는 과정에서 낱말의 뜻을 익히고 어휘구사 능력을 익힌다.

5. 諷 笑 謔

諷笑謔은 비정상적인 대상을 놀려 주려는 動機에서 부른다. 人間이나 時代, 社會非理, 遇行, 惡行 등을 비꼬고 조롱하여 공격한다는 점에서 成人의 諷刺와 비슷한 性格을 지닌다.

이가 빠졌다가나 줄머리를 해서 정상에서 벗어난 애,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人物에 대해 戲劇的 興미가 생겨나고 놀려주고 싶은 충동에서 대상을 야유하고 풍소한다.

23) Ruth Finnegan. ; 앞의 책, p.109.

(23) 돈오신놈이 돈이신 추목

개가죽 구두에
세비루양복 넥구다이
메가네 벨로곡
일본대관 둥그러가난
쇄대가리 물대가리
다분어 버렸네.

(원자채록, 표선면 신흥리, 82.6, 오문북, 남·43.)

<語釋> 돈없는놈이 돈없는양

개가죽 구두와
세비루양복 넥타이
안경 끼고
일본대관 건너가시
소머리 말머리
다분어 버렸네.

위의 노래는 虛한 사람이 있는 者처럼 꾸미고 다니고 허풍쟁이를 諷刺하였다. ‘개가죽 구두’, ‘세비루 양복’, ‘넥구다이’, ‘메가네’ 등은 잘 갖추어진 外樣을 뜻하여 富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개, 소, 말 등의 動物을 登場시키고 ‘벨르다’, ‘둥그러가다’와 같은 鄙語를 사용하여 천박함과 허함을 비꼬고 있다.

다음은 讖謠의 性格을 띤 노래이다. 唱者(淮月邑 郭支里, 金仁郎, 여, 92.)에게 童謠를 口演하도록 징하자, “일본놈이 쳐들어 오려하니 동네 아이들이 여기저기 모여들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나름대로 讖謠의 性格을 反映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口演했다.

(24) 일본놈이 농금의 집에 - ㉠

뭇늘레 갔나
새끼치레 갔다 - ㉡
뭇머리 쳤나 - ㉢
두머리 쳤다 - ㉣
보까먹고 다까먹고 - ㉤

(원자채록, 애월읍 광지리, 83.6, 김인랑, 여·92.)

<語釋> 일본놈이 농금의 집에

뭇하러 갔나
새끼치러 갔다
뭇마리 쳤나
두마리 쳤다
뽕아먹고 닭아먹고

- (25) 까치는 깍깍
 동애물은 독독--(A)
 너어디 가나
 금산에 간다 --(B)
 뭇하러 가나 --(A)
 새끼치러 간다 --(B)
 몇마리 쳃나 --(A)
 열두마리 쳃다--(B)²⁴⁾

질문 (A)와 대답(B)가 問答體의 노래를 형성하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反抗이 드러나고 있다. (25)에서는 순수한 새를 노래하는 데 반해 (24)는 日本의 植民地 政治를 描寫하고 있다. 植民地化를 ‘새끼 쳃다’, 植民地 統治의 수탈과 억압의 狀況을 “보까먹고 다까먹고”라고 表現하며 ‘두 마리’란 朝鮮과 淸國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3)(24)는 모두 日帝下의 實情을 題材로 한 것으로 前者는 불붙는 듯한 韓國人의 모습이, 後者는 침략의 마수에 걸려든 당시의 世態를 드러내어 암울한 분위기가 깔려 있다.

諷笑謔에는 순수한 조롱의 성격을 띤 노래들이 있다.

- (26) 앞담 모라졌저
 뒫담 모라졌저
 우리앞담 모라전
 췌들로 구나
 앞담 다우라.
 (필자채록, 애월읍 금성리, 83.7, 흥덕삼, 여·67.)

< 語釋 > 앞담 헐었네
 뒫담 헐었네
 우리앞담 헐어져서
 소가 들어가겠구나
 앞담 췌아라.

- (27) 개똥벌레기 중벌레기
 하늘위의 동둥.
 (필자채록, 애월읍 광령리, 84.6, 김시진, 남·13.)

< 語釋 > 개똥대가리 중대가리
 하늘위에 동둥.

24) 任東權; 『韓國民謠集』, 앞의 책, 1295번의 자료.

(28) 뽕한건 장제

새끼한건 게와시.

(권자채록 애월음 금성리, 83.7, 흥덕삼, 여·67.)

<語釋> 말이 많으면 부자
자식 많으면 거지.

(29) 뽕는뽕우희 는는뽕시연

승어뽕난 복쟁이뽕연

저원담²⁵⁾에 뽕갈라지곡

꽃인올히 장개가난

현올히 나도나도²⁶⁾

<語釋> 뽕는뽕위에 나는뽕있어
승어뽕니 복쟁이뽕어
저원담에 나자빠지고
말짱한올리 장가가니
현올리 나도나도.

(26),(27)은 이빠진 애와 중머리한 애를 놀리면서 부른 것이다. 젓니를 뽕 7~8세의 아동을 상대로 노래 하는데, 이빠진 상태를 돌담 무너진 밭에 比喩하여 소가 들어가서 곡식을 해칠까 염려하는 內容이다. 또한 완전히 삭발한 머리가 마치 하늘 위를 둥둥 떠가는 것으로 描寫한 것은 좋은 착상이라 생각된다.

(28)에서는 濟州島民의 生活의 단면을 諷刺的으로 드러내면서 敎訓을 內包하고 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는 俗談이 그대로 反影되며 (29)는 자신의 분수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警世의 노래이다.

6. 呪術謠

어린이들은 自身의 소망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변화가 오리라는 確信을 갖고 소박한 信仰心이 깃든 노래를 한다. 뽕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또는 비가 그치기를 기원하며, 빠진 이를 지붕 위로 던지면서 부르는 노래는 呪術性을 띠어 呪力을 가진다. 呪力은 본질적으로 效果性이 요구되는 힘이며, 超人的이어서 神秘的이며 불가사의한 활동을 하는 힘을 뜻한다.²⁷⁾ 다음 채록한 呪術的인 노래들은 단순한 몸짓으로 行動이 수반되기도 한다.

25) 원담 ; 멀치따위 고기들을 에워싸서 그물로 잡기위해 바닷가에 두른 돌담.

26) 金築教 ; 「濟州島民謠研究(上)」, 앞의 책, 1370번의 자료.

27) 林基中 ; “新羅歌謠에 나타난 呪術觀”, 「國語國文學」, 4호, p.69.

백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손을 뒤로 한다든가, 빠진 이를 던지거나, 실거리 나무를 꺾어다 부뚜막 위에 환자를 앉혀서 呪術을 외는 行動은 儀式을 행함으로써 어떤 효험을 가져오리라는 祭禮의 축소 형태라 볼 수 있다. 그래서 呪術性을 띤 노래는 어린이들의 言語觀 및 어린이의 精神的 價値가 문제된다.

(30) ㄱ사라닷되 소곰닷되
장되칼로 소악소악.
(필자채록, 제주시 연동, 84.4, 이금숙, 여·62.)

<語釋> 까끄라기닷되 소곰닷되
장도칼로 속속.

(31) ㄱ갈라 호미갈라
갈갈라 호미갈라
너희어멍 칼들렁 죽이레완져.
(필자채록, 제주시 용담동, 84.4, 김금희, 여·27.)

<語釋> 갈갈아라 호미갈아라
갈갈아라 호미갈아라
너희엄마 칼들고 죽이러온다.

(32) 들어가라 들어가라
너희엄마 칼들렁 죽이레완져.
(필자채록, 제주시 제주서교, 84.4, 이진호, 남·13.)

<語釋> 들어가라 들어가라
너희엄마 칼들고 죽이러온다.

(30)(31)(32)은 백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손을 뒤로하고 노래를 한다. 같은 機緣에서 부르는 노래를 唱者의 年齡에 따라 通時的인 面에서 살펴 보았다. ‘칼’, ‘호미’ 등의 鐵物이 동원되고 ‘보리 까끄라기’가 나타나 ‘불’을 연상시키고 있다. 傳承變異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노래로 가장 根本이 되는 內容과 어휘는 그대로 傳承되면서 時代의 변천에 따라서 다른 어휘들이 대체되고 있다. ㄱ사라, 소곰, 장되칼>칼, 호미>엄마, 칼 등으로 變異된 것은 時代의 變化에 따른 兒童意識과 어휘의 變貌와, 또 들고 傳하는 과정에서 變異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실하다. 위와 같은 類型的 노래는 共時的으로도 널리 분포되어 있어 韓本土 및 日本 등지에도 널리 퍼져 있다.

(33) 너몸은 사라사라 <語釋> 너몸은 사라사라
우리애기몸은 맨질맨질. 우리애기몸은 맨질맨질.
(필자채록, 애원읍 금성리, 83. 7, 홍덕삼, 여·69.)

(33)은 피부병이 난 환자의 치료를 위한 呪言이다. 피부병은 날카로운 가시에 傳移되고 몸은 깨끗해질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呪言은 비록 가락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對象 또는 神, 人間과 감통할 수 있는 靈的인 매체로 연상적인 힘(associative power)이 강하게 나타난다.

위와 같은 呪術謠는 宗教的 機能을 지니며 科學的, 現實的으로는 不可思議한 일이지만 空想과 架空을 믿는 힘이 呪術的 효용을 드러내는 것이다.

7. 자 장 가

자장가는 어린아이를 재운다거나 우는 아이를 달래는 노동의 機能을 지닌다. 이처럼 “선명한 機能을 지니면서 老少共有의 노래이고 노래의 대상이 유아라는 점에서 다른 傳承童謠와 유다르다.”²⁸⁾ 그래서 가끔 童謠에서 제외시켜 民謠에 分類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²⁹⁾ 그러나 어린이 세계를 중심으로 한 成人의 노래이므로 童謠라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장가는 五倫, 富貴, 長壽 등을 주된 內容으로 한 典型的인 자장가와, 庶民性 또는 諸謔性이 드러나는 地域的인 자장가 類型으로 內容上 分類가 가능하다.³⁰⁾

제주지역의 자장가는 辭說內容이 풍부하여 위의 두 類型이 복합적으로 變異된 자장가 형태가 흔하다

(31) 왕이 자랑 왕이자랑
 천지건곤 일원동아
 우리나라 흥신동아
 잠을 자는 소리보다
 우리아긴 가지길담
 유겨씩물 깨우소리
 نوم의아긴 죽막말안 비는소리
 우리아긴 뒤밥먹언
 자는소리 노는소리
 نوم의아긴 고치먹언
 우는소리 왕이자랑.

(필자채록, 한림읍 수원리, 83.7, 박순여, 여·90.)

28) 金榮敦; “童謠”, 앞의 글 p.377.

29) 高晶玉; 「朝鮮民謠研究」(1949)에서는 자장가를 婦女의 母女愛戀歌로 처리하고, 鄭東華는 “拘川地方의 民謠攷”에서 民謠가운데 자장요류를 선정하고 있다.

30) 尹致富; “韓國자장가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1985, p.21.

〈語釋〉 왕이자랑³¹⁾ 왕이 자랑
 천지건곤 일월동아
 우리나라 충신동아
 잠을자는 소리로다
 우리아긴 家財田畷
 유기재물 겨운소리
 남의아긴 옥박³²⁾ 받아 구걸하는소리
 우리아긴 맛있는밥먹어
 자는소리 노는소리
 남의아긴 고치먹어
 왕이자랑 왕이자랑.

(35)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애기 잔도 잔다
 자는것은 잠이로다
 노는것은 놀이로다
 저레가는 검둥개아
 우리애기 새와도라
 아니재와 주민
 짚긴짚긴 총베로 걸려다근
 지핀지핀 천지소에
 들이첫딱 내리첫딱 흥키여.

(하략)

(필자재록, 제주도 봉개동, 82.8, 현순생, 여·49.)

〈語釋〉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애기 잔도 잔다
 자는것은 잠이구나
 노는것은 놀이로구나
 저리가는 검둥개아
 우리애기 재워달라
 아니재워 주민
 짚긴짚긴 베로 걸터
 깊고깊은 천지소에
 들엿다 내엿다 할것이다.
 (하략)

31) 자랑자랑.

32) 작은 바가지.

(36) 왕이자랑 왕이자랑
 애월면도 면(面)자랑
 한림읍도 읍자랑
 명월진도 진(鎭)자랑
 명월성도 성(城)자랑
 차귀진도 진자랑

(중략)

서귀포는 개자랑 진자랑
 정의원은 원(院)자랑 대(竹)자랑 구덕³³⁾자랑
 아기자랑.

(필자채록, 한림읍 수원리, 83.7, 박순여, 여·90.)

(34)의 자장가는 복합형으로 典型的인 자장가의 內容인 ‘아기의 귀함’과 ‘충신동이’, ‘부귀로움’으로 표현된 成長後의 기대감이 남의 아기와 對照되어 나타난다. ‘죽박’, ‘된밥’, ‘고치’ 등의 庶民의 日常的인 어휘가 동원되고 있으며 唱者는 庶民의 가난한 生活를 자식에 대한 기대를 통해 昇華시키고 있다.

(35)의 자장가는 자지 않고 보채는 아기에게 불렀을 가능성이 짙다. ‘잘도잔다’는 잠을 재촉하기 위한 최면이며, 강아지에 대한 威脅이 결국은 자지 않은 아기에게 투사되고 있다.

(36)는 제주도의 地各을 열거하면서 그 地域의 자랑거리를 ‘왕이자랑’의 ‘자랑’과 脚韻을 맞추어, 아기의 意識狀態를 몽롱하게 혼란시켜 수면으로 誘導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의 자장가는 어린애를 잠재우기 위한 순수한 動機에서 불려진 것이지만 忠, 孝, 富, 貴 등 자식에 대한 부모의 願望이 담겨져 있는 것과 어린애의 意識狀態를 몽롱하게 誘導하거나, 주변 사물에 대한 威脅的인 辭說의 사용이 어린이에게 傳寫되는 등 特異한 형태도 있다.

33) <아기구덕>의 준말, 대오리로 엮어서 만든 아기를 넣어 재우는 長方形의 바구니.

IV. 濟州傳承童謠의 特性

濟州地域의 童謠는 이 地域의 自然環境 및 歷史的 特性을 바탕으로 창출된 것이므로 地域的 特色을 지니게 된다. 童謠는 어린이들 생활 전반에 걸친 생활상이 그대로 반영되며 사회의 재반 모습과 어린이의 意識이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文學的, 民俗學的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環海天險의 島嶼로서 韓本土로부터 널리 떨어져 있다는 隔絕性, 土地가 狹隘하다는 점, 豪雨, 旱災 등 自然的으로도 불리한 環境에 처해 있었다. 또 濟州島民은 中央政府 및 지방관리의 수탈과 貢賦, 몽고나 왜구의 침략 등 歷史的인 악조건 속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不敗의 信念과 강한 生活意志를 키워 왔다. 韓本土 및 濟州童謠에 대한 體系的인 研究가 부족한 상태에서 濟州童謠의 特性을 究明한다는 일은 부분적 인식에 그칠 危險性이 없지 않다. 그러나 前章에서 內容을 살폈고 韓本土童謠와의 對比가 濟州童謠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라 여기고 形式과 內容의 側面에서 演繹的 方法으로 比較考察하려고 한다.

1. 形式上의 特性

1) 行의 數

童謠는 形式上 뚜렷한 特徵을 지니지 않아 문학장르 중 가장 原初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童謠가 각 행이 二句로 構成되고 있으며 短型이다. 이런 特色은 濟州童謠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5行 미만의 童謠는 濟州地域에서 $\frac{194}{386}$ (50.3%), 韓本土에서는 $\frac{103}{459}$ (22.4%)³⁴⁾로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短型은 含蓄性 있는 表現이 이루어진다는 長點과 辭說內容이 풍부치 못한 缺點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어릴 빠진 애를 놀리면서 부르는 노래에서 韓本土와, 濟州의 것을 對比해 보더라도 그 차이는 뚜렷하다.

(37) 앞니빠진 갈가지 뒷니빠진 노장 통새 가지마라 구데기새끼 놀란다 도랑가 가지마라 봉어새끼 놀란다	산에 가지마라 토끼새끼 놀란다. 누두렁에 가지마라 꿀뽕이새끼 놀란다 큰길가에 가지마라 등금장사 놀란다.
--	--

(醴泉地方)³⁵⁾

34) 任東權; 『韓國民謠集Ⅲ』, 앞의 책의 자료.

35) 任東權; 『韓國民謠集Ⅰ』, 앞의 책, 1698번의 자료.

(38) 앞담 무라졌저
 뒷담 무라졌저
 사상밧의 도하여졌저.

(필자채록, 표선면, 성음리, 82.6, 김희자, 여·27.)

<語釋> 앞담 무너졌네
 뒷담 무너졌네
 사상밧에 돌담무너졌네.

2) 韻 律

童謠에는 旋律이 있어서 律格的 要素가 形成된다. 童謠는 대부분 遊戱와 同伴되어 노래로 불려지므로 律動美가 있다. 韻律이란 言語를 통해서 具現되는 것이므로 律格이란 言語의 어떤 현상이 숫자적으로 嚴格히 규칙화된 것을 말한다.³⁶⁾

童謠는 대개 二音步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 音步에 나타나는 音節數에 따라 音數律은 3·4, 4·4, 4·3 調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韓本土 童謠에는 기본 律格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濟州童謠는 三音步 이상 길어지기도 하며 音節數가 加減되기도 한다. 이는 童謠가 노래로 歌唱되지만 않고 辭說的인 형태를 취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圖表로 살펴 본다면,

<표 6> 傳承童謠의 音步數³⁷⁾

地域	型	二音步	三音步	혼합형	기타
韓本土		359/459(78.21%)	45/459(9.80%)	35/459(7.63%)	20/459(4.36%)
濟州		210/386(54.4%)	47/386(12.18%)	102/386(26.42%)	27/386(6.99%)

※ 기타는 音節의 區分이 精確하지 않은 事實적인 형태들이다.

童謠에서 韻律은 唱者의 動作이나 노래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濟州地域의 童謠에서는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破格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36) 金大辛; 「韓國詩歌構造研究」, 三英社, 1979, pp.22~23.

37) 本土童謠는 任東權 「韓國民謠集Ⅲ」의 자료이며, 濟州地域은 필자 수집자료인.

(39) 살레 안에 중이가

훈머리 들었다

두머리 들었다

식머리 들었다

살레안에 죽이가

훈머리 나갔다

두머리 나갔다

식머리 나갔다.

〈권자채 북, 애월읍 좌금교, 83.7, 좌화숙, 여·13.〉

〈語釋〉 살레³⁸⁾ 안에 쥐가

한마리 들었다

두마리 들었다

세마리 들었다

살레안에 쥐가

한마리 나갔다

두마리 나갔다

세마리 나갔다.

〈줄넘기를 하면서〉

(40) 큰놈아 주레산이 불어도라

작은놈아 주레산이 불어도라

큰년이랑 큰명석 물꼭

작은년이랑 작은명석 몰라.³⁹⁾

(하략)

〈語釋〉 큰놈아 피리 불어달라

작은놈아 피리 불어달라

큰년이랑 큰명석 말고

작은년이랑 작은명석 말아라.

(39)은 줄넘기 놀이를 하면서 부른다. 몸동작과 맞추기 위해서는 二音步가 가장 적당한 형태일 것이다. 그리고 1.3 調나 3.3 調의 기본 音數律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동작이 규칙적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40)은 이와는 달리 動作이 併行되지 않으므로 三音步의 조금 완만한 律格을 형성하고 二音步와 혼합된 變形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詩歌의 音步律이 三音步에서 二音步로, 또는 四音步⁴⁰⁾로 옮겨 간 것과 마찬가지로

38) 食器 따위를 넣어 두기 위하여 찬장 모양으로 간략히 짜서 부엌 걸 또는 부엌칸 구석에 두어 두는 家具.

39)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앞의 책, 1321번의 자료.

40) 鄭炳⁴¹⁾; 「國文學散藁」, 신구문화사, 1959, p.134.

로 三音步가 原始型으로 볼 수 있다. 즉, 완만한 三音步에서 促急한 템포로 移行된 것은 時代적으로 變遷하는 人間의 生活感情의 變化에서 오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만하던 中世의 가락도 近代로 접어 들면 快速調가 된다. 거의 짜즈풍으로 넘어가는 現代의 大衆歌謠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이나 다 歷史의 템포에 맞추어진 것이다.⁴¹⁾

3) 文 體

文體論的인 分析은 音의 反復이나 語順의 轉倒, 文章 속에 包含된 體系(hierarchy)의 構造를 찾는 것이다.⁴²⁾ 童謠는 대개 反復을 이용하여 韻律美를 살리고 있으며 問答體의 노래도 많다. 文體의 우수함이 韓本土童謠에는 드러나고 있지만 濟州童謠는 表現技巧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41) 하늘같은 울어메가
구름같은 병이나서
약방약을 걸어놓고
앉아종실 누워종실
외꽃같은 병이나서
숨갈줄은 나몰랐네.
(南海地方)⁴³⁾

(42) 저바당의 우럭선생 굴레 커신 우럭선생 맛이 좋은 옥돔선생 잘부르는 생복선생. ⁴⁴⁾ (하략)	< 語釋 > 저바다의 우럭불락선생 아가리크신 우럭불락선생 맛이 좋은 옥돔선생 잘붙으는 생복선생. (하략)
---	--

(41)은 韓本土노래로 ‘하늘’은 높고 큰 어머니의 存在를 표현하며 우울, 근심의 상징인 ‘구름’이 하늘과 對照되는 등 直喩와 對照法을 사용하여 수준 높은 修辭를 사용한 노래이다. (42)의 노래에서는 단지 描寫에만 그칠 뿐 修辭技巧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慣用的인 표현은 童謠에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韓本土童謠 중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思母謠에는 “鄭石歌”와 비슷한 慣用的인 표현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상징성을 띤다. 描寫된 語句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1) 趙芝薰; 「韓國文化史序說」, 探求堂, 1968, pp. 313 ~ 14.

42) R. Wellec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8, p.180.

43) 任東權; 「韓國民謠集Ⅲ」, 앞의 책, 1549번의 자료.

44)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앞의 책, 1299번의 자료.

(43) 심광밑에 삼은팍이
 싹트거든 오마더라
 들들밑에 오조갈아
 싹이 트면 오마더라
 병풍에 황계답이
 화치거든 오마더라.⁴⁵⁾

(44) 우리어머니는 연잎이요
 우리아버지는 댓잎이네
 연잎댓잎이 틀어틀지면
 우리 형제 눈물나네
 부성 바다 비내리네.⁴⁶⁾

어머니는 ‘연잎’, 아버지는 ‘댓잎’ 등의 보조관념을 사용하여 比喩하고 있고 濟州童謠에도 慣用的인 표현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줄기’에, 어머니는 ‘잎’, 아들은 ‘얼매’, 딸은 ‘꽃’에 比喩된 감적인 노래도 있다.

(45) 아방은 줄동이
 어멍은 잎동이
 아들은 덩드렁동이
 딸은 꽃동이.

<語釋> 아버지는 덩굴동이
 어머니는 잎동이
 아들은 덩드렁동이⁴⁷⁾
 딸은 꽃동이.⁴⁸⁾

2. 內容上의 特性

1) 題 材

濟州島는 自然環境, 歷史, 文化가 韓本土와는 상당히 다르다. 어디를 가나 산과 바다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산의 威容과 氣風을 배우며 憧憬의 세계를 꿈꾼다.

童謠의 題材는 日常的인 자기 주변의 對象物이 借用되므로 韓本土童謠와 濟州童謠間의 題材化된 動物을 對照하면 차이를 드러낸다.

45) 任東權; 「韓國民謠集Ⅲ」, 앞의 책, 1554번의 자료에서 발췌.

46) 任東權; 위의 책, 1865번의 자료.

47) 댄댄하고 미끈하며 둥글넓적한 짚을 두드리는 돌판. 여기서는 ‘호박’을 이에 비유했음.

48) 金榮敦; 앞의 책, 1364번의 자료.

〈표 7〉 韓國傳承童謠에 나타난 動物⁴⁹⁾

종류	구분	본 토	비 율 (%)	제주지역	비 율 (%)
	새	233	45.45	47	28.65
	곤 충	132	26.88	71	43.29
	짐 승	37	7.53	19	11.58
	바다 동물	37	7.53	24	14.63
	기 타	52	10.59	3	1.82
	계	491	100 %	164	100 %

이 상에서 본 바와 같이 韓本土에서는 곤충보다 새를 題材로 한 노래가 많은 데 비해 반 대현상이 나타나며 특히 바다동물이 많이 借用되고 있다.

- (46) 불락늪이 간밤에 꿈을 보낸
 백발술에 은납지도 물어베고
 돛배몰도 타베고
 은단갈도 품어베고
 백모살도 허터베고
 백탄불도 초아베고
 져상에 올라야자
 술삼산도 받아베고
 설삼배도 마타렘테다
 우럭삼촌 들어봄서
 우럭삼촌 잘명심흡서
 불락조캐 조심후라.

(원자채록, 한림읍 수원리, 83.7, 박순여, 여·90.)

- 〈語釋〉 불락이 간밤에 꿈을꾸니
 백발술 은납지도 물어베고
 도마위에 올라베고
 은장도를 품어베고
 백모래를 훌어베고
 백탄불을 쪼어베고
 세사상에 올라앉아
 술석잔도 받아베고
 설삼배도 받아베었오
 우럭삼촌 조심하오
 불락조카 조심해라.

49) 본토의 동물편수는 金素雲「朝鮮童謠集」(1933) : 86 편, 朴斗演「韓國傳來童謠讀本」(1962) : 201 편, 任東權「韓國民謠集」(1961) : 204 편에 분류됨.

(47) 밥하라 죽하라
네미네비 죽은디
율미쑤어 가게.

(필자채록, 제주시 용담동, 84.4, 이안영, 여·33.)

〈語釋〉 밥하라 죽하라
너어미 너아비 죽은 곳에
훤죽쑤어 가자.

(48) 중왔다 죽쑤어라
나그네왔다 밥해라.⁵⁰⁾

(安邊地方)

(46)은 볼락이 꿈을 통해 물고기가 잡혀 와서 제사상에 오를 때까지의 과정을, ‘꿈’의 세계를 통해 익살스럽게 전개시키고 있다. 낚시에 걸려 와 도마위에서 배를 따고 백모살(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 불에 구워서 제사상에 놓인다. 제주해안에서 흔히 잡히는 물고기의 처지를 자신과 同一視하여,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로 지역민의 被害意識을 엿볼 수 있는 노래이다.

(47)은 濟州에서 게를 가지고, (48)은 韓本土에서 가재를 잡고 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게나, 가재에서 나오는 거품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는 濟州나 韓本土의 노래 類型이 비슷하다. 어머니 곁에 앉아 밥을 지으며, 솥뚜껑 사이로 넘쳐 나오는 흰 거품을 보면서 대단한 흥미를 느꼈을 것이고, 그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순수한 童心은 地域에 구애됨이 없이 바로 동일한 內容의 노래가 창작되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침략의 역사 및 地域風土가 題材化 되기도 한다.

(49) 이빨빠진 어랭이
남의밭 돌맹이
멧게나 헤쓰랏냐.

〈語釋〉 이빨빠진 어랭이
남의밭 돌담을
멧게나 헐었다.

(필자채록, 안덕면 안덕국교, 83.6, 김미미, 여·11.)

(50) 신랑님이 오신다
색시님도 오신다.
신랑방에 불켜고
색시방에 불켜라.⁵¹⁾

(原州地方)

50) 任東權; 『韓國民謠集』, 앞의 책, 1479번의 자료.

51) 任東權; 위의 책, 1500번의 자료.

(51) 동데레 불나라
서러레 불나라.

(필자채록, 애월읍 애월리, 84.6, 홍여순, 여·46)

<語釋> 동으로 불나라
서으로 불나라.

(49) 는 이가 빠진 애를 놀리는 노래이다. ‘어랭이’는 이빠진 애를 부르는 호칭이며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게우지(협천) 괴앙이(남해) 갈가지, 노장(예천) 싱냥이(경남) 증강새(서울) 할망, 하르방(제주)등이다. 즐비한 돌담이 무너진 상태가 이가 빠진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50) (51)은 색시풀이나 쇠비름을 가지고 돌이나 손바닥에 두들겨 마찰시키면서, 줄기부분이 붉어지는 모습을 신기하게 여겨 불이 켜지는 것으로 착상하였다. 韓本土에서는 신랑방과 색시방에 붙여는 모습이 아름답게 描寫되는 반면에 (51)의 노래는 倭寇의 침입을 막기 위한 烽燧臺에 불이 켜졌던 歷史的 사실을 反映한다.

2) 呪術性

아이들의 思考는 成人보다 훨씬 더 自然界에 대한 畏敬心이 강하여 단순한 형태의 呪術謠를 부른다. 모두 目的性을 지니며 機能性을 띠기도 하나 論理가 도외시되고 있다.

다음 노래는 잠자리를 잡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로, ‘迎神君歌’와 類型이 비슷하게 구성된 것이다.

(52) 물자라 물자라 一呼稱
안즈라 안즈라. 一命令
안안지민 니네집이 一假定
불개와 불키여. 一意志

(필자채록, 표선면 성읍리 김진두, 82.6, 남·12.)

(53)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燐灼而喫也

위의 두 노래를 비교하여 보면 동일한 類型이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이런 일을 해라”하는 積極的 呪術 형태를 취하고 命的이며 強制性을 띤다. 韓本土에서는 눈에 티가 들었을 때 위와 같은 類型의 노래를 부른다.

- (54) 까치야 까치야
 내눈에 티내라.
 안내주면 네새끼
 발기발기 찢었다.
 (洪城地方)⁵²⁾

까치를 불러서 눈에 든 티가 사라지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濟州地域에선 이빨을 지붕위로 던지면서 까치를 부르고 있고, 영문학의 直喩에⁵³⁾ 나타난 까치 역시 구함(Saving)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는 까치에 대한 人間의 심리가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普遍性을 띠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童謠는 原始宗教的인 機能을 가지고 향유되던 民謠가 人智의 發達로 거의 消滅되었으며 現傳童謠에 그 殘影이 남아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⁵⁴⁾

짓니를 발치했을 때 우리 俗習에는 脫齒를 버리지 않고 지붕위로 던지면서 노래한다.

- (55) 묵은늬랑 돌아가곡
 새늬랑 돌아오라.
 (필자채록, 남원읍 태흥국교, 83.7, 김미자, 여·11)

<語釋> 묵은이랑 돌아가고,
 새이랑 돌아오라.

- (56) 까치야 까치야
 내헌늬 가져가고
 새늬를 보내도라.
 (필자채록, 한경면 고산리, 82.6, 김숙희, 여·12.)

위와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吉鳥인 까치가 물어가서 새 이를 가져 오리라는 확신이 이런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다.

태평양의 Rarotonga 섬에서도 어린이들이 脫齒를 지붕 위로 던지면서

- (57) 큰쥐야 작은쥐야
 나의남은 이빨이 여기에있어
 내게새것을 보내다오.⁵⁵⁾

52) 任東權; 앞의 책, 1293 번의 자료.

53) T. H. Svartengren; Intensifying Similes In English, (Gleerupska Universitetsbokhandeln, Lund, 1918.) 佐夕本達譯 「強意的直喩の研究」 英語學 라이프러리(27) 東京: 研究社, 1976, p.35.

54) 左永助; “韓國民謠研究: 濟州島 民謠를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1965, p.53.

55) 프레이저; 「황금의 가지」, 張秉吉譯, 三省出版社, 1981, p.78.

하고 노래 하는 것은 지붕 위에 쥐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쥐에게 비는 까닭은 쥐의 이빨이 토착민들에게는 가장 튼튼한 이빨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설치동물의 이빨과 같이 튼튼하고 뛰어난 것이 되기를 바라는 노래는 感染呪術(contagious magic)의 一種으로 이와 같은 慣習은 독일 등 세계 곳곳에서 散見되고 있다.⁵⁶⁾

濟州地域에서는 위의 것들 외에도 비를 그치게 하거나, 매미나 도롱이를 잡기 위해서 또는 백을 사라지게 하며, 피부병을 없애기 위해 노래하는 따위 呪術謠가 많은 편이다. 原始民族일수록 呪術性이 강하게 作用하고 있고, 제주지역의 童謠에 그런 特性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未開性을免했다고 할지라도 原始宗教的 畏敬感이 가지지 않은 限 呪術力은 維持될 것이다.

3) 現實性

한 地域의 童謠는 그 地域 어린이들의 生活, 思考가 內包되어 있다. 自然的, 社會的, 영향이 成人에 비해 덜 민감한 편이지만 다소 影響을 받게 된다. 항시 가난을 의식한 어린이들은 궁핍한 생활상이 노래 속에 드러나기도 하고, 理想的인 꿈과 憧憬의 세계를 노래하다가도 現實을 의식하여 現實性이 강한 童謠를 불렀던 것이다.

(58) 새야새야	파랑새야	〈語釋〉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되	들지마라		녹두밭에	들지마라
청포장시	밋이진다		청포장수	밋이진다
밋이지든	걸이지든		밋이지든	걸이지든 ⁵⁷⁾
내나먹고	살아시민.		내나먹고	살았으면 ⁵⁸⁾

(58)은 어린이들의 눈에 비친 궁핍한 생활이 그대로 드러난다. ‘밋이지든 걸이지든’은 이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 ‘내나먹고 살아시민’은 極限狀況에서 버틸 수 있는 최후의 자기 보호일 뿐이다. 이와 같은 狀況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은 높은 理想과 꿈의 세계를 노래하다가도 現實을 의식하게 되어 現實化해 버리는 경험이었다.

56) 프레이저 ; 위의 책, p.79.

57) 對句로 조작된 말.

58) 金榮敦 ; 「濟州島民謠研究(上)」, 앞의 책, 1276번의 자료.

(59) 돌아오라	소년달아	〈語釋〉	돌아오라	소년달아
나의임금	심근낭계		나의임금	심은나무에
무신을유	을아신고		무슨얼매	열었던고
해광달이	을아신라		해와달이	열었더라.
혜는따당	춤치메곡		혜는따다가	주머니매고
돌은따당	바위돌링		달은따다가	돌레를 돌러
동새별은	댕침박곡		동새별은	박음질하고
상고지른	침을돌곡		무지개론	끈을달고
이문전에	걸어노코		대문안에	걸어놓고
「돌아가신	옥황새아		「올라가는	옥황님아
내려오는	정든사랑		내려오는	정든사랑
요춤칠	상감서」		요주머니	사서가오」
「춤치는	아깝주단		「주머니는	아깝지단
금전웃엄	못사쿠다」		금전없어	못사겠소」 ⁵⁹⁾

天上界의 存在를 生活 周邊으로 끌어들이면서 부르는 4·4 調의 정제된 형태이다. 주머니를 만들면서 부르는 韓本土의 노래와 비슷한 內容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주머니는 금전으로는 바꿀 수 없을 만치 정성이 가득하다. ‘옥황상제’와 ‘님’을 同格으로 다루어 高貴하신 분께 드리고 싶지만 겸연쩍고 부끄럽기도 하다. 그러나 ‘금전웃엄 못사쿠다’는 浪漫的이고 感傷的인 분위기가 現實化되어 버렸다. 이는 理想과 꿈의 세계에서 머무를 여유가 없으며 그런 분위기조차 벗어나려는 庶民들의 意識이 諷刺的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童謠의 形式과 內容面을 韓本土의 것과 比較하여 보았다. 제주지역의 童謠는 韓本土童謠에 비해서 短型이며 行의 數도 적어서 辭說內容이 풍부치 못하나 含蓄性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音步도 2音步에서 벗어난 3音步와 混合型이 많은데 이는 曲調로 불리지 않고 辭說的인 노래가 많기 때문이다. 慣用句 역시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修辭技巧도 덜 세련되어 原始型에 가깝다. 그러나 內容面에서는 地理的, 歷史的, 特性이 나타나 地域 특유의 題材가 反影되는가 하면 呪術謠와 같은 연상적인 힘을 지닌 노래가 存在하고 또 불리한 環境을 의식한 現實性이 강한 노래도 불리어진다.

59) 金榮敦 ; 양의 책, 1356번의 자료.

V. 結 語

濟州地域에 전해져 내려오는 傳承童謠를 蒐集 및 題材와 遊戯機能 위주의 分類를 하고 辭說內容을 分析해보았다. 또 특수한 環境에서 창출된 童謠인 만큼 地域的 背景을 기반으로 그 特性을 추출해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濟州傳承童謠를 歌唱機緣을 참고하면서 題材 및 遊戯機能 위주로 分類하면, 動物이나 植物을 보거나 채취하여 가지고 놀면서 부르는 動植物謠, 天體의 움직임이나 氣象의 變化를 기대하면서 부르는 天體氣象謠, 遊戯를 즐기면서 부르는 遊戯謠, 낱말을 創造하여 말놀이를 즐기는 語戲謠, 정상에서 벗어난 애를 놀리는 諷笑謠, 노래를 부름으로써 어떤 驚異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呪術謠, 아기를 재우면서 부르는 자장가 등으로 分類가 가능하다.

둘째, 動植物謠는 動植物에 자신을 投影하거나 擬人化해서 同一視하기도 하며 모습, 움직임, 분위기 등에 나타나는 특징이 자신의 生活經驗과 연결되어 情緒를 表出한다. 天體氣象謠는 自然界에 대한 畏敬心과 어린이들의 原始的인 思考를 엿볼 수 있다. 遊戯謠에서 集團 또는 個人 놀이의 辭說은 놀이 진행을 위해 부르며 靜的인 놀이에서는 自身の 感情이나 소망이 표현된다. 지금에 와서 생겨난 傳承되는 遊戯謠는 과거의 어린이들의 꿈과 소망을 노래한 것이 사라지고 成人社會나 學校, 家庭에 대한 욕구불만 토로가 주를 이룬다. 語戲謠는 日常的·可視的·具象的인 어휘를 동원하여 꼬리따기, 對句 맞추기, 問答體, 擬聲, 擬態 등의 方法으로 흥미로운 文章을 만들어 즐기고 있다. 諷笑謠는 비정상적인 대상을 諷笑하거나 時代 또는 人物을 諷刺하기도 하며 諷刺는 教訓性을 띠기도 한다. 呪術謠는 노래로 불려지거나 또는 중얼거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神, 人間 또는 對象과 감통할 수 있는 靈的인 매체로 연상적인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장가는 아기를 재우기 위한 목적과 忠·孝·富·貴 등 자식에 대한 부모의 願望이 內包된다.

셋째, 濟州傳承童謠를 韓本土의 노래와 對比해 보면 形式面에서는 行의 數도 적고 短型이며, 音步는 2音步에서 벗어난 3音步 또는 2·3音步 混合技巧가 덜 세련되고, 慣用句의 사용도 찾아보기 힘들다. 內容面에서는 地域的 特性이 드러나 地域特有的 題材가 借用되고, 自然的, 社會的 影響으로 現實性이 강한 노래를 부른다. 또 呪術性을 띤 呪術謠가 많은 편이다.

오늘날 口碑文學에 대한 研究의 중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口傳되는 자료가 世態의 變化와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傳承童謠의 수집은 몇 편의 책에 수집되긴 했지만 아직도 모자란 실정이며 研究作業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필자는 연고지인 제주지역의 童謠를 수집하고 연구하였으나 辭說이 간단하고 內容이 두드러지지 못하여 研究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과거의 어린이와의 거리감으로 口演狀況이 달라 立體分析이 정확지 못하고 方法論 역시 찾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가락 채보를 통한 音樂的 分析과 遊戱機能과의 相關性 研究, 遊戱謠의 變遷史, 어린이 特有的 修辭나 文體研究 및 他國과의 比較研究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될 때, 다른 口碑文學 장르와의 位相定立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參 考 文 獻

○ 자 료 집

- 金素雲；「朝鮮童謠選」，岩波書店，1933。
——；「口傳童謠選」，博文書館，1940。
——；「朝鮮口傳民謠集」，東京；第一書房，1933。
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上)」，一潮閣，1965。
朴斗鎭；「한국전래동요독본」，을유문화사，1962。
신경림；「한국전래동요집 1,2」，창작과 비평사，1981。
任東權；「韓國民謠集」，을유문화사，1961。
——；「韓國民謠集Ⅲ,Ⅴ」，集文堂，1976,1980。
秦聖麒；「南國의 民謠」，濟州民俗文化研究所，1968。
濟州大學；「國文學報」，第七輯（中文里 學術調查特輯），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1975.12。
——；「學術調查報告書」，第五輯（蘭山里調查），濟州大學 國語教育科，1977.6。
——；「學術調查報告書」，第六輯（城邑里調查），濟州大學 國語教育科，1978.2。
濟州大學民俗博物館；「海材生活調查報告書」，（龍水里 및 吾照里調查），濟州大學學徒護國團，1978.10。

○ 論 文

- 金善豐；“童謠小考：江陵地方의 童謠를 中心으로”，「關東大論文集」，第七輯，關東大學，1979.3。
金大辛；“韓國詩歌律格論序說”，「韓國詩歌構造研究」，三英社，1976。
金榮敦；“民謠와 他口碑文學의 交流”，「濟州大學論文集」第10輯，1978。
——；“韓國傳承童謠蒐集研究經緯”，「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螢雪出版社，1980。
——；“韓國傳承童謠에 드러난 靑少年의 意識”，「濟州大學論文集」，第12輯，人文科學編，，1980。
——；“韓國傳承童謠의 傳承變異”，「李丙疇先生周甲紀念論叢」二友出版社，1981。
——；“童謠”，「韓國民俗大觀」第6卷 口碑文學篇，高大民族文化研究所，1981。
——；“韓國傳承童謠의 主題”，「韓國民俗學」17號，民俗學會，1984。
——；“韓國傳承童謠와 動植物”，「口碑文學」6，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1。
——；“濟州島民謠研究”，東國大學校博士學位論文，1983。

- 具然軾；“우리 民謠에 나타난 母性愛”，「民俗文化」，第二輯，東亞大學校 民俗文化研究所，1980.
- 서영숙；“시집살이 노래의 작품세계”，精神文化研究院 碩士學位論文，1983.
- 成基玉；“韓國詩歌의 律格體系研究”，서울大學校碩士學位論文，1980.
- 左永助；“韓國民謠研究；濟州島民謠를 中心으로”，高麗大學校 大學院，1969.
- 鄭東華；“抱川地方의 民謠攷”，「畿田文化研究」제 5 집，인천교육대학 畿田文化研究所，1974.
- 鄭炳昱；“古詩歌韻律論序說”，「韓國學散藁」新丘文化社，1959.
- 趙東一；“現代詩에 나타난 전통적 울격의 계승”，「우리문학과와의 만남」，弘成社，1978.
；“民謠：童謠”，「서울評論」，45號，서울신문사，1974.9.19.
- 崔範勳；“서울地方의 口傳童謠攷”，「韓國學散藁」，二友出版社，1978.10.
- 黃希榮；“韓國詩歌餘音攷”，「국어국문학」18號，1957.
- 玄吉彦；“濟州島어린이 遊戲謠考；오늘날의 遊戲要素에 나타난 社會參與問題”，「濟州島民俗」，2號，濟州島民俗學會，1964.8.

○ 著 書

- 金正律；「兒童發達과 教育」，學文社，1982.
- 高晶玉；「朝鮮民謠研究」，首善社，1949.
- 金大辛；「韓國詩歌構造研究」，三英社，1976.
_____；「韓國詩의 傳統研究」，開文社，1980.
- 金東旭；「韓國歌謠의 研究」，乙酉文化社，1961.
- 文德守；「世界文藝大辭典」，成文閣，1975.
_____；「新文章講話」，成文閣，1978.
- 朴相圭；「蒙古民謠研究」，開文社，1978.
- 손동인；「한국전래동화연구」，정음문화사，1984.
- 李在徹；「兒童文學概論」，文運堂，1967.
_____；「한국현대아동문학사」，一志社，1978.
- 柳岸律；「韓國고유의 兒童놀이」，正民社，1981.
- 任東權；「韓國民謠史」，文昌社，1964.
_____；「韓國婦謠研究」，集文堂，1982.
- 張德順外 3人；「口碑文學概說」，一潮閣，1980.
- 鄭東華；「韓國民謠의 史的研究」，一潮閣，1981.

- 鄭炳昱；「韓國文學散藁」，新丘文化社，1959.
- 趙東一；「敍事民謠研究」，啓明大出版部，1970.
- ；「우리문학과와의 만남」，弘盛社，1978.
-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한길사，1984.
- 최철·설성경；「민요연구」，정음사，1984.
- 黃湘江 外 3 人；「韓國文學研究入門」，知識産業社，1982.
- 프레이저；「황금의 가지」，世界思想全集，張秉吉譯，三省出版社，1981.
- 玄容駿；「濟州巫俗資料事典」，新丘文化社，1980.
- 玄平孝；「濟州島方言研究」，第一輯，資料篇，精研社，1962.
- 「韓國文化史大系 V」，言語·文學史(F)，高大民族文化研究所，1967.
- 「韓國民俗大觀」第 6 卷，高大民族文化研究所，1981.
- Brooks, C. & Warren, R.P., Understanding Poetry, Holt, Reinhart and Winston, 1960.
- Welleck, R. & Warren, A., Theory of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8.
- Finnegan Ruth,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Peter, H. Lee., Korean Literature: Topics and Themes,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1965.
- Karpeles, M., An Introduction to English Folk song,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73.
- Svartengren, T.H., Intensifying Similes' in English, Gleerupska Universitetsbokhandeln, Lund, 1918.
- 佐夕本達譯，「強意的直喩の研究」，(東京，研究社).
- 柳田國男；「民謠覺書」，創元社，1940.